

| 신년사 |

## 이해관계와 생각이 다를수록 더 많이 대화하고 더 깊이 논의해야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노동자, 기업인, 국민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역사적인 정권교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나라 안팎에는 거센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과감한 구조개혁으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법치주의 노동개혁입니다. 무너졌던 공권력이 화물연대 운송거부 현장에서 살아났습니다. 쳐다만 보고 있던 경찰이 불법적인 운송 방해 행위를 막고 운송차량을 보호해서 멈췄던 물류를 뚫었습니다.

둘째,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개혁입니다. 노동조합이 산업현장에서 민주주의 학교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회계투명성을 더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해야 합니다. 비정규직과 영세기업, 플랫폼 노동 등 미조직노동자의 목소리를 더 열심히 듣고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넷째,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를 다양하고 유연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정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한 근로시간과 임금 등 많은 노동개혁과제들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포괄적으로 논의해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동개혁과제들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노·사·정, 그리고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이해관계와 생각이 다를수록 더 많이 대화하고 더 깊이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조직을 쇄신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문을 항상 열어 놓겠습니다. 국민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가장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노사가 모두 행복한 노동개혁의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 2023 노사정 신년인사회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참석

‘노사정 신년인사회’가 1월 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3년 만에 개최됐다.

이번 ‘2023 노사정 신년인사회’에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행사를 주최한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호준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임이자 국회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노·사·정의 협력과 화합을 도모했다.

인사회에서 김문수 위원장은 “정권교체에 성공한 대통령이 예상보다 더 강력하게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치주의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또한 “노동조합이 도덕적 정당성을 강화하려면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대한민국 경제 기적의 주역으로 민주화를 주도했던 한국노총이 미조직 영세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이타적 실천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노사관계에서 세계경쟁력을 갖추려면 대립 투쟁적인 노사관계가 아닌 상생 협력적인 노사관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가 노사정의 지도자들과 노동개혁 과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미조직 노동자와 청년, 여성, 비정규직,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끝으로 김문수 위원장은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를 국민과 함께 추진하겠다고며, 2023년이 노사가 함께 행복한 노동개혁을 이뤄내는 원년이 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로 인사를 마쳤다. **eslc**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주요 부서장 임명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문수, 이하 위원회)는 전문임기제공무원 15명을 경쟁 채용을 통해 선발하여 임명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향후 전문임기제 경력경쟁 채용을 추가로 시

행할 예정이다. 채용분야는 ‘의제조사분석(다급 2명)’, ‘대외협력(다급 1명)’, ‘홍보(라급 1명)’이다. 이번 추가 채용은 지난 '22년 말 신규 채용 시, 채용하지 못한 인력에 대한 충원이다. **eslc**